



3년만에 KBO 리그로 돌아온 김광현(오른쪽)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열린 SSG랜더스 입단식에서 민경삼 대표이사에게 유니폼을 전달받고 있다.

김광현 “목표는 하나, 우승”

2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 마치고 KBO리그 복귀

4년 총액 151억원 계약 체결로 SSG 정식 입단

김광현이 마침내 인천으로 돌아왔다. 김광현은 16일 오후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SSG 랜더스 입단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입단식은 지난 8일 SSG와 4년 총액 151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김광현의 첫 공식 행사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의 귀환답게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김광현을 향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광현은 민경삼 대표이사로부터 건네받은

등번호 '29'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고 포즈를 취했다. SK 와이번스 시절인 2019년까지 뛰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김광현이 SSG 유니폼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배 메이저리거 추신수와 간판타자 최정은 직접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전해주며 에이스의 복귀를 축하했다. 김광현은 환한 미소로 환대를 받았다. 김광현은 입단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시즌이 끝나고 SSG가 나로 인해 우승할 수 있었다

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자 오를 다졌다.

이어 “팬들도 나도, 프런트도 선수들 모두 마찬가지로. 목표는 한 가지다. 우승을 위해 최대한 돕겠다. 이제는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으면 한다”고 한국사리즈 제패를 향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몸만들기에 한창인 김광현은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음 주 중에는 시범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계획이다.

김광현은 2007년부터 미국 진출 전인 2019년까지 SSG 전신인 SK에서만 뛰며 298경기 출장 136승77패 평균자책점 3.27의 기록을 남겼다. /뉴시스

허구연 KBO 총재 선출, 이르면 24일 확정

KBO의 총재 선출이 이르면 오는 24일 확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1일 KBO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허구연 해설위원(사진)을 제24대 총재로 총회에 추천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총재는 이사회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총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BO는 후보 선출에 대한 동의 여부를 24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화신에 달라고 요청했다. KBO의 한 관계자는 “총회 자리에서 총재 선출이 결정될 수 있지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약 10명의 총회 구성원이 서면으로 24일까지 투표를 행사할 경우 25일 총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구계에서도 선수·감독·해설위원 출신의 총재를 받기는 분위기다. 허 해설위원은 오랫동안 야구계에 몸담고 있어서, 프로야구의 문

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뉴시스



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뉴시스

K리그 파워랭킹, 올 시즌부터 변경

다이나믹 포인트에서 '아디다스 포인트'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K리그 파워랭킹 '다이나믹 포인트'가 올 시즌부터 '아디다스 포인트'로 바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다이나믹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이 선수 랭킹 시스템은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용되는 '파워랭킹'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 시즌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오피셜 스폰서 아디다스의 협업을 통해 '아디다스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K리그 선수들이 경기 중 기록한 31개 항목의 데이터를 일정한 산식에 넣어 개인별 포인트를 계산하는 선수 랭킹 시스템이다. 포지션에 따라 데이터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점수를 더해 최종 포인트를 계산한다.

득점, 도움 등 기본적인 기록 외에 패스와 수비, 선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들의 면면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K리그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매 라운드 종료 후 최근 5라운드 점수를 반영한 아디다스 포인트가 K리그, 2 각각 상위 20위까지 공개된다.

K리그 5라운드 종료 후 올 시즌 처음 공개된 아디다스 포인트에선 대구FC 수비수 정태욱이 5887포인트로 1위에 올랐다.

정태욱은 개막 이후 전 경기 풀타임 출전하며 클리어는 43회로 가장 많았고, 가로채기 26회(5위), 수비지역 차단 18회(5위) 등 수비 관련 데이터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태욱에 이어 설영우(울산)가 2위(5394포인트), 그랜트(포항)가 3위(5362포인트)를 차지했다. /뉴시스

태권도원 정상 운영... 방역 조치 강화

지난 15일부터 방문객 입장 허용
태권도박물관 등 모든 시설 오픈

순환버스 수시 소독·환기
실내시설 1일 2회 방역 등 실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15일부터 태권도원 당일 방문객 입장을 허용하는 정상운영에 맞춰 방역 관련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태권도원은 앞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24일부터 당일 방문객 입장을 제한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15일부터는 매일 두 차례의 태권도원 상설공연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 관람을 비롯해 국립태권도박물관, 체험관 YAP, 전방대 관람 등 태권도원 모든 시설에 대해 당일 방문객에게도 오픈한다.

이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문 업체와 자체 코로나방역 TF를 활용한 방역을 강화하며 순환버스와 모노레일은 탑승 전·후 수시로 소독과 환기, TI공연장과 체험관 등의 실내 시설은 1일 2회 방역을 하는 등 방문객의 안전한 여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코로나 시대에 가족과 함께 즐겨보고 힘을 줄 수 있는 힐 나

는 가족 여행지로 선정되며 봄을 맞은 3월, 태권도원을 찾으면 태권도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여유 그리고 푸릇푸릇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국립태권도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휴식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운영위 실무회의

군산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에 앞서 군산체육진흥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운영위원회 실무회의를 지난 15일 가졌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식 및 번외 종목 주관 단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번 실무회의는 전북도, 군산시, 정식종목(요트, 수상·핀수영, 철인3종경기, 카누) 관계자 및 전국해양스포츠연맹 등 경기지원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회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기본계획과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종목 관계자들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장 및 개·폐회식장 현장 시찰로 진행됐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